

聖住寺址石塔 解體와 組立

洪 思 俊

하던 石燈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聖住寺址에서 바라보이는 周圍의 山을 東에 七星峰 北에 王字峰 東北間에 花王峰 西에 玉馬山이라 한다. 王字峰은 寺蹟記에서는 聖住禪院으로 新羅文聖王이 勅賜할 때에는 山曰崇岩이라고 하였으며 新羅聖住禪院은 그 前身이 百濟烏合寺로서 新羅太宗武烈王의 八代孫인 朗慧和尚無染國師가 唐宣宗大中元年(八四七 A. D. 新羅文聖王九年) 丁卯冬十一月十一일에 烏合寺에 온 이후에 寺名이 바꾸어진 것이고 國師가 到着한 그 날밤은 눈이 많이 내리었던 狀況과 이 烏合寺에는 前부터 居住한 僧侶가 있었던 것도 알리고 있다.

其夜雪下半腰……僧俗寂梵行 志崇三人 先居之

그리고 百濟烏合寺가 創建된 年代도 記錄되었는데 隋煬帝大業十二年(六一六 A. D.) 乙亥에 百濟國의 二十八世 惠王의 子 法王이 所建하였고 烏合寺創建目的은 戰勝에서 木숨을 잃은 將兵의 冤魂을 佛敎에 願昇하던 願利이란 것도 明記되어 있다.

三國遺事 法王禁利條에 法王은 A. D. 五九九年에 即位後 그해 겨울에 殺生을 禁하고 民家에서 거르는 鷹鷂類를 放하고 漁獵具를 禁하라는 下詔가 있어서 徹底한 佛敎信君이며 또한 王興寺(扶餘窺岩面新九里)를 創建한 王이라 하면 戰勝에서 木숨을 잃은 將兵의 慰靈을 爲하는 寺利建立도 합직한 行爲라 할 것이다.

그런데 煬帝大業十二年 乙亥(丙子의 誤)는 武王十七년에 該當된다. 法王元年과 武王十七年間的 差誤가 있음은 烏合寺를 法王이 始作하고 武王十七년에 竣工한 것으로 보아서 妥當할 줄 안다. 現聖住寺寺域이 廣大한 面積을 保有하였음을 보아서 이 같이 推測되는 것이다.

또한 一九六八年에 東國大學校博物館이 聖住寺址를 調査할 때 百濟蓮花紋 솟막새 一枚를 鐵佛石座가 있는 建物址築臺前 地下 一m에서 獲得한 例는 百濟時代 建物이 있었다는 것을 立證하는 것으로 考古美術第九八號註記를 再錄하여 둔다.

二

聖住寺址 四基石塔을 解體와 復元한 時日은 지난 一九七一年 十二月 釋迦如來舍利塔으로 보아서 石塔前方에 一基의 石燈은 이 舍利塔을 밝

忠南 保寧郡 嶺山面 聖住里所在 聖住寺址는 現在 地上에 遺存된 遺物로는 國寶第八號로 指定된 朗慧和尚白月探光塔碑가 寺域 西北方에 位置하고 其他 今次에 解體復元한 寶物第一九號 聖住寺址五層石塔과 寶物第二〇號 聖住寺址中央三層石塔 및 寶物第四十七號 聖住寺址西三層石塔과 同寺址東三層石塔(未指定)이 있고 五層石塔前에 石燈一基(未指定)가 있다. 그리고 東三層石塔의 東北約二〇m地點에는 古拙한 手法으로 彫刻된 立佛(毘盧舍那佛一大尊像)이 있을 뿐이다. 聖住寺址는 東西로 長方形 寺域이 約三萬坪이며 그 中央部地區에 伽藍이 設置되었으리라 하는 推定이 가며 金堂址에는 지금도 建物址가 남아 있고 金堂 中央에는 佛座臺가 石材二枚로 되고 周邊에는 蓬花가 彫刻되어 있는데 이 佛座에는 일찍이 鐵佛이 있었다는 村夫의 傳言이다. 鐵佛石座가 있는 後方으로는 東西 一列로 三基의 三層石塔이 있는데 聖住寺蹟(考古美術第九八號資料)記를 보면 宣光如來舍利塔 迦葉如來舍利塔 藥師如來舍利塔이라고 하였는데 現在 東·西·中央 三基의 石塔이 어느 舍利塔에 該當할 것인지未詳하다, 곧이 말한다면 東方藥師如來에 東塔이 該當할 것이고 迦葉如來는 釋迦十大弟子의 一人으로 中央塔에 該當시키면 西塔은 宣光如來舍利塔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寺域內에 三基石塔이 金堂址 後方에 建立된 것은 흔히 볼 수 없는 事實이라 하겠다. 金堂址앞에 세워진 五層石塔을

二十三日에서 今月三十一日까지 九日間に 實施하였으며 여기에 參與한 人員과 請負會社는 다음과 같다.

監督 檀大博物館長 鄭永鎬

實測及立會 文化財專門委員 洪思俊

請負者 資한건설회사 鄭復永

聖住寺址의 四基石塔의 方向을 보면 子午線에서 東傾 三十五度 五로 되었음으로 寺院의 伽藍方向을 取한 것을 알겠으며 그리고 金堂址 佛座臺中心點에서 各石塔의 位置인데 먼저 五層石塔의 距里(五層石塔地臺石까지) 以下距里는 地臺石間을 말함)가 三三·二七m인데 金堂前의 階段中央을 通過하며 다음 後側에 있는 中央塔까지는 一五·八七m인데 五層石塔과 金堂佛座中心點과 中央塔과는 勿論南北一直線上에 놓여 있고 이 中央石塔과 左右石塔의 位置는 南北直線에서 九〇度로 配當되었고 中央塔에서 東塔西塔은 同距리에 있어서 中央塔과 東塔이 八·八七m 中央塔과 西塔이 八·八六m로 그 距里差는 〇·〇一m이다.

이런 解體와 組立은 四基石塔에 限하였으나 石燈一基만을 除外할 수 없어서 이것도 解體와 組立을 兼行하였다. 石燈의 本來位置는 앞에서 말해 둔 北에 中央塔 佛座中心點과 南에 五層石塔等의 南北直線에서 北적에 一·二九m 東便에 치우쳐 있고 五層石塔과의 距里 一·九五m 떨어져 있었다. 部落民의 말에 의하면 石燈材가 石塔앞에 散在한 것은 日政時에 適當히 位置를 잡아 組立하였다는 것이다. 이번 修理時에는 그 位置를 變更하여 南北線에 맞추어 組立하되 五層石塔과 石燈을 同一區域內에 두고 鐵柵을 함에서 不得已 塔과 石塔의 距里를 一·五m로 短縮하여 組立하였음을 말해 둔다.

A. 五層石塔 總高(地台上) 六·三四八m

이 石塔을 解體에 앞서서 一瞥하면 第五層蓋石의 上部西北側이 깨어져 나가고 現存 札柱孔에는 方角孔의 一邊이 五·五cm·深八〇cm가 남아 있을 뿐이다. 또한 石塔地臺石은 本是 四枚長石으로 四面을 右使石頭에 左長石을 橫置해서 一面으로 한 方形地臺이었는데 東側地臺石 一個가 流失된 것은 何年에 雜石으로 臨時補充하였으나 견고하지 못하였음에서 塔全體가 若干東傾하여 있었다.

地臺石을 들어내고 四圍의 地臺石外側을 一m 擴張하고 地下 一m를 파보니 附土上에 石塔이 建立되었던 것을 알겠고 이 塔址에서는 除土時에 鶯尾小片 一枚 土佛小片 一枚와 塔臺檀下에서는 方形朱色の 人工을 加한 石材片 一個가 出土되었는데 아마도 塔後側의 金堂이 무너지던 當時의 新羅遺物임을 알겠다. 그리고 塔을 露盤에서 第一層의 蓋石과 塔身에 가까워 順次解體하는 途中에 第一層塔身上面에서 舍利를 裝置했던 舍利孔이 發見되었으나 一切의 遺物은 임이 없어졌고 다만 舍利裝置를 하는데 使用했던 石蓋로 볼 수 있는 (一部破損) 圓形石物이 艾色으로 되었고 仰臥하여 있었다. 舍利孔은 方形인데 一邊幅이 五四cm—五五cm 深二·五cm이나 舍利孔中央을 向해서 斜面으로 圓形을 거치른 솜씨로 治石되며 底徑이 三·八cm이었다. 舍利蓋石은 最長外徑 二·六·四cm 內外로써 콤파스로 돌린 圓形이 아니기 때문에 口緣部 內徑이 三·〇cm 內外이고 蓋石 內面도 垂直角이 아니고 완만한 曲線으로 治石되었는데 最深部 높이는 六·五cm 蓋石 總高는 一〇cm 程度이었다.

第一層塔身下에는 普通石塔에서 觀察하면 基壇甲石이 놓이는 것이 常例라 하였으나 聖住寺址의 경우는 五層塔을 비롯해서 石塔三基가 모두 第一層塔身下에 받임 板石이 一枚가 더 있는 것은 江原道 平昌의 凡持寺八角塔의 例와도 같으며 一見室內에 出入하는 드림돌같이도 여겨진다. 이 받임 板石에 있어서 寺址後側에 있는 三基塔의 것은 上基壇甲石과 接續하는 받임 板石底部가 三基가 同一하게 仰面이 內曲되었으나 五層塔의 받임 板石底部는 直角形을 이루어서 相異한 것을 볼 수 있다.

基壇部는 上下二成基壇으로 되었는데 地臺石下에는 雜石과 若干의 強灰를 使用한 듯하나 견고하지 못하였고 地臺石周圍에도 土壓防止의 外廓石을 發見하지 못하였다. 地臺石은 四個長石으로 石頭와 長石을 橫置해서 一面을 이루었음은 앞에서 말하였거니와 이번 補修時에 東側地臺石을 三個石으로 짝아서 連結補充하였다. 그래서 地臺石은 結局 六個石으로 된 셈이다. 이 地臺石 위에는 下基壇撐柱(面石) 받임石이 南面二枚 北面二枚로 되고 東面는 南北兩長石頭間에 三個石을 加해 一面이 되고 西面는 南北兩長石頭間에 一長石을 加해 一面이 되었다. 東側 三個石이 된

것은 一個石의 三個로 分斷된 것인데 아래의 地台石이 없어질적에 깨진 듯하다. 다음 撐柱板石도 南面의 四枚로 方形을 이루었는데 이亦是 地台石과 반입돌이 破損할 때 同時에 東北地面돌이 三枚와 二枚로 分斷된 것으로 推測된다. 다음 下基甲石은 四枚板石으로 되어 아래 面石을 均衡있게 누르고 있었다. 上基壇의 面石은 本是 四枚板石으로 짜였는데 南面은 撐柱와 兩隅柱가 陽刻되었으나 其地三면은 隅柱 撐柱를 一枚板石의 彫刻한 面石으로 되어 있고 上基壇甲石은 二枚로 南北의 돌이 있었는 데 破損된 곳의 石이 完全하였다. 이 碑의 解體復元에 있어서 基壇部의 内部와 地台下에는 그 空間을 強灰 다짐과 川石으로 固체 다졌을 말해 둔다. 塔身部의 蓋石과 塔身은 모두가 各一枚石으로 이루어 있으며 蓋石은 上面에 위의 塔身을 반입 2cm 内外 높이가 있고 蓋石下에는 四段層級이 있는은 各層의 蓋石을 通하여 同一하다.

五層石塔測眞南面實(單位cm)

名稱	尺數		高	幅
	露盤	蓋		
第五層	身	蓋	18.5	長 幅
	身	蓋	42.0	兩隅棟 100.0
第四層	身	蓋	20.0	56.5
	身	蓋	42.0	兩隅棟 116.0
第三層	身	蓋	25.3	61.3
	身	蓋	44.0	兩隅棟 129.5
第二層	身	蓋	27.0	72.0
	身	蓋	44.0	兩隅棟 146.5
第一層	身	蓋	34.0	86.0
	身	蓋	48.5	兩隅棟 161.0
			78.8	兩隅棟 102.2

五層塔前方 石燈은 八角蓋石 八面火舍 八面仰蓮中臺 八角竿石 八面覆蓮下臺 方形 眼象石이 俱備한 總高 二·一九m 이나 蓋石上의 蓮峰石의 流失되어서 어떤가 訝異한 感이 있다. 그리고 一面二區의 眼象石下에는 地台石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나 亦是 紛失되었던 것을 移轉時에 附近 板石四枚를 連續하여 地台石으로 代用하였고 이 板石下에는 川石과 強灰로써 다져서 傾斜를 防止하였다.

B、東塔과 西塔

東西兩塔은 規模 樣式이 同一한 手法으로 製作된 三層塔에 上下二成 基壇에 花崗岩인데 治石한 것을 알겠다. 札柱孔이 圓形인 點 또는 第一 塔身에 南北兩面해서 門틀이 있고 門에는 잠움통(鎖金)의 正中에 있고 그 門 아래에 左右도 문고리 形을 陽刻한 것까지 同一하다. 다만 外 觀上 西塔에는 露盤이 남아 있으나 東塔에는 없는 것이 現況이다.

東塔은 總高 三·八一三m (地台石上)인데 露盤이 없어졌고 第三層蓋石의 上面이 缺失되어 現高가 三一cm 만 남았는데 札柱孔이 殘存한 圓形 徑이 八cm 深九cm 이다. 第一層塔身上面에는 方形 舍利孔이 南北邊各幅 四二cm 東과 西邊幅이 各四一cm 深一〇cm 로 되었다. 이 舍利孔의 裝置된 一切遺物은 盜失되고 香木小片과 少形土塔破片들이 殘存하였을 辨 이었다.

西塔의 總高가 四·四三m (地台石上)인데 北較의 完全하며 東塔에 比해 若干 높고 露盤(一七cm)이 殘存하고 第三層蓋石이 東塔에 比하여

部	基壇		計
	上	下	
板石	甲石	甲石	16.5
	面石	面石	121.0
基	甲石	甲石	31.5
	面石	面石	197.0
下	甲石	甲石	87.5
	面石	面石	165.5
基	甲石	甲石	28.0
	面石	面石	266.0
板石	面石	面石	32.2
	面石	面石	240.0
計			15.0
			24.3
			634.8

完全함으로 높이가 높은 것으로結局 西塔高를 보아 東塔第三層蓋石의 缺失部分은 六cm가 된다고 하겠다. 三層蓋石上面 中央의 札柱孔은 圓形인데 直徑八cm에 深一五cm로 露盤에도 中央에 同一直徑의 孔穴이 있다.

다음 第一層塔身上面에 있는 舍利孔은 方形인데 東西各邊 三二cm 南北各一邊이 三〇·五cm 深에는 東塔과 같이 舍利裝置는 全然 없고 舍利孔에 香木腐敗粉末과 塵埃 草虫皮가 있었을 뿐이다. 西塔第一層塔身 頂石에는 四側의 各橫面에 七個小孔이 있는데 中央에 三孔 左右各二孔이 있다. 아마도 壯嚴을 하기 爲한 것으로 史料된다.

東과 西塔身의 構造는 塔蓋石의 下底에는 四段의 層級을 가졌고 蓋石의 左右사래 끝이 들어 있어서 날신한 感覺을 풍기고 있다. 그리고 基壇에는 地台石위에 下基壇받침石과 下基의 撐柱板石(面石) 甲石이 없혀 있는 것이다.

基壇의 차임은 東塔의 경우 地台石이 南에 長石을 橫置하고 西의 長石머리를 合해 一面을 이루었는데 西面이 同一한 方式으로 차여 있으나 西塔의 地台石은 南과 北에 一個長面(北側長石三斷)으로 一面을 하였고 東西는 南北長石間에 一石을 介入해서 面을 이룬 것이 相異하다.

下基받침石은 東塔에 있어서 東西가 各一石으로 面하고 南北은 東西長石間에 一個長石을 끼어 面을 하었다면 西塔의 경우도 東塔의 下基받침과 같다.

下基撐柱板石은 南面만 一個長石으로 面하였고 其他 三面은 잇물어서 面을 取하였는데 西塔의 下基撐柱面石은 南北이 各二個石으로 面하되 側은 東西의 長石머리에 二個長石을 插入하여 面을 取하였으며 下基甲石 南은 東塔에는 四枚로서 一板石이 各隅를 덮었는데 西塔은 同一하고 東塔上基面石은 南에 一石(二個로 分斷) 北에 一個로 面을 하고 東西各面은 南과 北의 長石頭에 一石씩을 끼어서 面을 取하였으나 西塔의 上基壇面石은 東西의 長石頭間에 끼어서 面을 내었다. 上基甲石에 있어서 東塔것은 東西各一石을 놓았으며 西塔의 경우는 南北으로 各一石씩을 놓았다.

그리고 東西塔의 第一層塔身받침은 東塔 西塔이 各一枚石으로 받쳐 있

는 것이다.

C、中央塔(總高四·一〇二m 地台石上)

이 塔의 形態는 左右塔에 있는 石塔樣式과 모든 점이 同一하나 第一層塔身의 南面과 北面에 陽刻된 門扉에 鎖金形及 문고리形이 있고 上下 左右에 小珠가 陽刻되어서 上의 二列 一列에 六顆와 下의 二列 一列에 六顆가 있고 鎖金左側에 二列 一列에 二個씩 石例에 二列 一列이 二個가 있는데 縱橫이 同一間隔으로 整然한 配列이 있는 것이 特異하다.

中央塔의 破損現狀은 가장 甚하여서 第一層塔身의 西北隅가 떨어져 나갔고 第一層塔身받침板石은 東南隅가 破損되며 基壇에 있어서 是 上基壇面石東側의 南쪽이 없어졌던 것을 何年에 一枚板石으로 補修하였으나 面石에 中間撐柱形이 없는 板石으로 되었고 石質도 原塔의 花崗石과 달리 黃白色의 異質石材이다.

第三層塔蓋石上에 方形의 札柱孔이 있는데 一邊이 五cm 深五·五cm이다. 解體時에는 露盤이 없었던 것을 西塔 頂上에 二個露盤이 겹쳐서 놓였던 것을 이곳 頂上에 一個를 移置한 것을 말해 두며 그 露盤中央에 七·五cm의 圓孔이 上下로 貫通해 있음을 말해 둔다. 그리고 第一層蓋石과 第二層塔身을 이어서 使用하였는데 正面에서는 보이지 않도록 東西로 上身을 「形、下蓋는 「形式으로 移動되지 않도록 石塔 造成時부터 이와 같이 接續시킨 것 같다.

다음 第一層石身上面에 裝置한 舍利孔에서는 塵埃가 投入되어 있음을 뿐이고 舍利裝置와 遺物은 發見하지 못하였다. 다만 舍利孔이 圓球形으로 과쳐 있는데 治石이 거치르며 上廣下狹이다.

圓球形의 上面直徑이 二二cm 下底直徑이 二二cm 深一二cm이었다. 이 塔의 塔身部는 그 形態가 東西塔과 樣式手法이 같음에서 言及을 略하며 基壇部의 組立狀態만을 적어본다.

地臺石의 四面石은 西側은 一石으로 面을 잡았고, 南과 北은 西側長石의 石頭와 各長石一個로써 面을 取하며, 東은 南과 北의 長石頭와 長石一個를 끼어서 面을 取하여졌고, 下基의 面石下 받침石은 四個石이 各隅

三箇石塔南面實測值單位

相輪	露	盤	東塔		西塔		中央塔		
			高	幅	高	幅	高	幅	
			無	無	17.0	上幅 35.0	17.0	上幅 32.5	
塔身	第三層	蓋	(上面欠) 兩隅 31.0	92.0	30.0	94.0	35.0	114.0	
		身		20.8	50.0	20.0	49.5	20.8	60.2
	第二層	蓋	兩隅 32.5	105.0	34.0	108.0	34.0	126.0	
		身		25.0	61.5	24.5	60.0	24.8	72.1
	第一層	蓋	兩隅 33.0	123.0	35.0	123.0	33.0	137.5	
		身		66.0	74.5	70.5	74.5	80.0	85.1
받임	板石		13.0	92.5	13.3	93.0	14.5	102.3	
基壇	上基	甲石		21.0	159.5	21.0	160.0	22.0	177.0
		面石		81.2	130.2	81.0	136.0	67.0	146.0
	下基	甲石		18.3	218.5	21.0	224.8	21.5	230.4
		面石		20.5	207.5	21.5	207.5	25.5	265.5
받임	石		15.0	218.0	15.5	214.0	15.0	240.5	
計				381.3		404.3		410.1	

를 一隅씩 保有하면서 四面을 잡았는데 西北隅가 꺼어져 나갔다. 下基面石(撐柱板石)은 西側의 長石上下頭와 南과 北의 長石을 合해 南과 北의 面을 하였고 東은 南과 北의 長石의 石頭와 東의 長石을 合해서 四面이 짜였으며 下基甲石은 四個板石이 四隅에 놓아 있다. 다음 上基面石 撐柱石)은 各面에 一枚板面으로 四面을 잡았는데 東側의 南端板石은 撐柱形 없는 板石으로 何年에 補修하였다는 것을 앞에서 말해 왔다. 上基甲石은 南과 北에 各一枚로 甲石을 造成하여 있다.

以上이 金堂址 後方에 있는 三基의 三層石塔을 解體와 組立의 略記이다. 三基의 石材는 花崗岩임을 밝히었으며 復元組立할 때는 地臺石下 m 程度를 파서 原塔의 基礎作業한 것을 살피었고 復元時는 大石을 塔中心에, 또는 地臺石이 놓이는 곳에는 强灰와 川石을 混用하여 原來 地位의 平面을 잡아서 組立한 것이다. 아래에 東塔西塔의 南面實測值를

扶餘博物館에는 九年前에 聖住寺址에서 移置한 羅代의 碑石龜趺破片數個가 있어서 제 짝을 찾아 본 結果 二個龜趺가 되고 다시 八年前에 螭首破片을 二次에 걸쳐 收拾한 바가 있었는데 이 螭首는 前記龜趺와는 關

思된다.

다음에 碑文石片을 二個가 또 다시 昨年에 同寺址의 民家에서 收拾하였다. 考古美術資料 二十一輯에 실린 바와 같이 「嵩巖山聖住」 「蓋聞迷津無際……遺言東流於震」 「且之國統貞……韓鼎足之代百濟」 「國獻王太……推者一七僧請居」 「此精舍……者辰韓京邑」 「……所……寺久聽」 등의 文字가 있는데 特히 注目할 곳은 「百濟國獻王太」의 文句일 것이다. 寺蹟記에 烏合寺를 創建한 것은 百濟國의 二十八世 惠王의 子法王이 하였다는 것으로 惠王을 一名 獻王이라 한 것을 國立博物館長 黃壽永氏가 밝힌 바와 같이 寺蹟記와 이 碑文의 文句는 一脈相通한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碑文의 獻王의 아래에 「太」字가 있는데 이 太字下에는 子가 있지 않음까 생각함은 寺蹟記에 「惠王子法王」으로 되었음에서 「獻王太子」가 아닌가料

表로 作成하여 參考에 供한다.

三

聖住寺址는 伽藍址로써 千年間을 維持하는 동안에 寺院名稱이 百濟의 烏合寺가 變해서 統一新羅의 聖住寺가 된 以後로 殿宇가 寺域內에 許多히 建立되었던 것을 寺蹟記에서 볼 수 있고 年來 同寺址에서 出土된 遺物도 許多한 것이다. 昨年에 紙上에 報道된 土佛들은 現地를 踏查하여 보면 東塔의 東便에 사는 老人이 앞밭(田)을 耕作하기 爲해 起耕하는 데서 佛頭가 發見한에서 收拾하여 扶餘博物館에 移送하였다는 것이다. 이 佛像들이 發掘된 場所에는 南北長方形의 建物址가 있음을 볼 수 있는 곳으로 現在 柱礎가 출을 지어 있다. 多數佛像이 出土하였다는 곳은 寺蹟記에 新羅文聖王이 造成한 三千佛殿의 遺址가 아닐까 생각된다. (佛像寫眞參照)

……三千佛相 安于三千佛殿 此三千佛尊 過去莊嚴千佛 未來星宿劫三千佛 「現在賢劫一千佛 未來星宿劫一千佛 三劫三千佛」乃文聖大王造成願佛也



圖 1. 聖住寺址 中央三層石塔

係없는 小形碑의 螭首이다. 그렇고 보면 住聖寺址에는 現地에 朗慧和尚
 白月葆光塔碑를 合해서 四基의 碑가 있었던 것을 알겠는데 寺蹟記에는
 崔致遠所撰碑(白月葆塔碑)와 金立之所撰碑一破로 二基碑가 있었음을 밝
 히고 있다. 이 金立之碑도 寺蹟記를 記錄할 때는 破碑가 된 것을 알겠
 다. 앞으로 聖住寺址에 碑石片을 注目함은 勿論 記錄에 나타난 各殿宇
 址와 各廊廡閣 寮址와 더불어 瓦當 佛像 等에 더욱 힘을 기울려야 하리
 라고 생각 되는 것이다. 끝으로 無梁國師의 浮屠를 年前에 黃壽永 先生
 이 崇巖山西麗에서 發見하고 이 浮屠臺石片을 聖住國校에 移轉하도록
 現地居住 金某氏에게 依頼하였던 바 아직도 國校에 옮기지 못하고 있
 는 것이다. 이 浮屠臺座가 비록 數片으로 分破되었으나 精巧한 彫刻手
 法은 耳目을 끌 수 있는 作品으로 紛失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
 이다.



圖 2. 復原된 石塔三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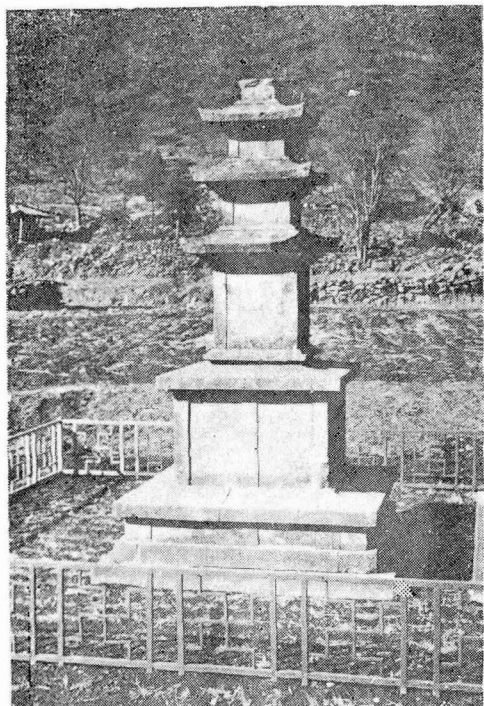


圖 4. 聖住寺址西三層石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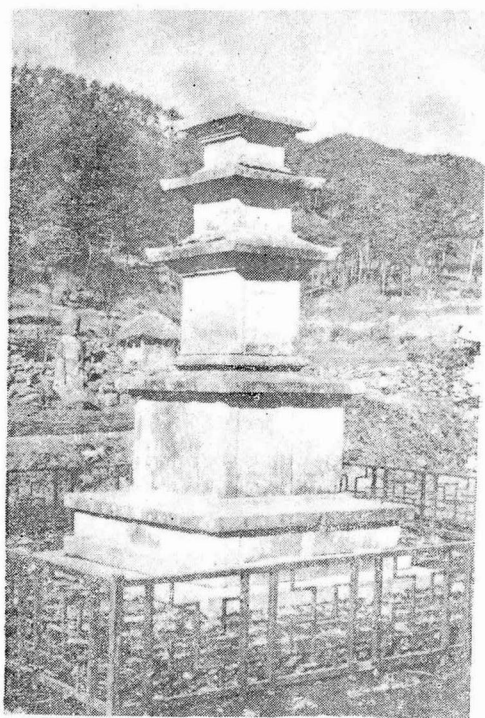


圖 3. 聖住寺址東三層石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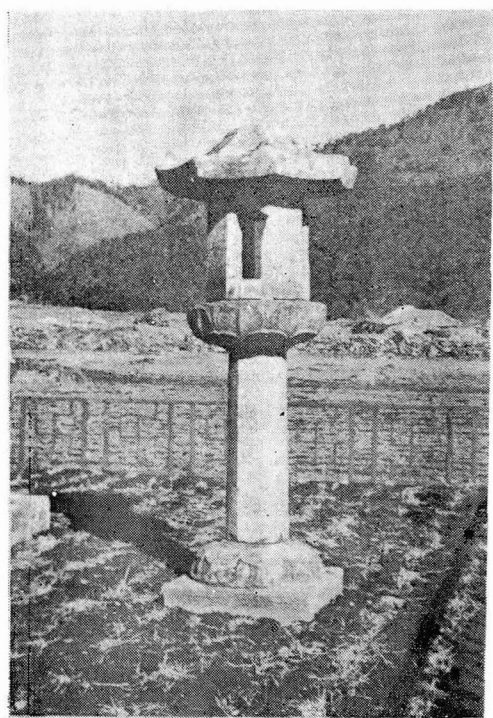


圖 6. 聖住寺址石燈



圖 5. 聖住寺址五層石塔